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비전머신'으로 제품 불량 '0' 전통의 현대화로 장류시장 선도

■ '제이엘씨' 정성태 대표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내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인 제이엘씨(주)는 차세대 센서로 불리는 '비전머신(Vision Machine)'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제이엘씨의 주력 제품인 비전머신은 제품 생산공정에서 불량품을 찾아 제거하는 무인자동감사장치다. 미세 카메라를 이용해 생산제품의 영상을 얻은 뒤 비교·분석하는 시스템 장비로, 음료·식품의 불량, 유통기한, 라벨오기, 반도체·자동차 불량 등 각종 검사나 측정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도요타 대규모 리콜 사태로 국내 대기업들이 '품질경영'에 적극 나서면서 인기가 급상승, '별량 제조 운동'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

국내 수요가 크게 늘자 회사 측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년에 기존의 서울사무소 외에 대전·울산에 신규 사업소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제이엘씨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뛰어 들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저전압 발광형 'EL(Electro Luminescence·전계발광)조명 시트'를 개발, 내년부터 본격 양산한다.

LED(발광다이오드)가 현재의 조명기술이라면 EL은 차세대 조명으로 불려 성장 가능성이 크다. EL은 면의 형태를 하고 있어 구부릴 수 있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13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정성태 제이엘씨 대표이사, 오우 매일식품 대표이사, 임충식 광주전남중기청장.

■ '매일식품' 오우 대표

로 베트남에 수출했다. 베트남의 라면 제조업체인 '아시아 푸드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현지 공장을 세웠다.

매일식품은 이 간장 공장을 '코카콜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만든 간장 원액과 핵심 원료를 베트남 공장에 보내면 이곳에서는 농도와 염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오 대표는 "이 공장을 통해 매년 50만~100만 달러의 원료와 간장 설비 수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일식품은 장류산업의 엄격한 식품위생 관리와 품질 과학화를 위해 200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천연 아미노산 함유 코쿠미조미료' 등 간장 제조 장치 및 제조기술 특허 5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기업) 선정됐다. ISO 9001 품질관리 인증과 KS 인증도 획득했다.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과학한 설비투자로 간장 생산설비를 전자동화하는 등 첨단 생산기업을 도입해 업계의 공장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차례 식품 위해물 파동 사건에도 지난 65년 동안 한 차례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한국 장류업계의 모범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ED보다 전기요금에 70% 저렴한 초절전형 제품으로 외국에서 인기가 있다. 미국·유럽 시장에서 광고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주문계약을 마친 상태다.

도로공사연구원과 공동으로 고속도로 안전 운행을 위한 차선 및 표지판에 EL조명시스템을 적용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성태 대표이사는 "정밀측정 시스템과 EL조명시스템은 제이엘씨의 양대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며 "내년 EL조명 수출이 본격화되면 매출 등 성장세는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엘씨는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과 ISO 9000·14000 등 품질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08년 기술연구소 설립해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시 서면 순천산단에 있는 순천시 영입신고 제1호 기업인 '매일식품(주)'은 연 매출 200억 원대에 달하는 65년 전통의 장류 전문 기업이자 지역 대표 중소기업이다.

매일식품은 1945년 8월 순천시 장천동에서 오우 대표이사의 어머니 김방 씨가 설립한 '김방장유 양조장'이 모태다. 1976년 회사를 물려받아 오 대표가 '어머니의 손맛'을 잇고 있다. 회사 슬로건도 '맛있는 장맛'이다.

그러나 오 대표는 그저 옛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전통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생산기업을 도입하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국내 업계 최초로 간장 원료와 제조기술 및 설비를 함께

대형 저축은행 지방은행 수준 감독강화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취급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 차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보다 자산규모가 큰 것으로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크다"며 "이제는 105곳의 저축은행에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 차등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차등감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영역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KDI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대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주력하되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방은행에 준하는 정도로 감독을 강화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방안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좀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구 영역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KDI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대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주력하되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방은행에 준하는 정도로 감독을 강화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방안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좀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5000원' 롯데 치킨 16일부터 판매 중단

논란 확산 일주일만에 백기

롯데마트가 출시되자마자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퐁크치킨'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13일 롯데마트는 '퐁크치킨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16일부터 판매중단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등 치킨업계 관계자

들의 반대 시위와 이들의 공적거래위 원회 제소 방침 등 반발이 거세지자 1주일 만에 판매를 접은 것이다.

'퐁크 치킨'은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대형마트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개발된 상품 중의 하나였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으로 폄하됐고, 주변 치킨 가게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여론으로

부득이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는 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으며, 이미 준비한 약 5만 마리는 연말까지 각 점포 인근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光銀, 국가경쟁력 높였다'

13일 이후 광주은행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국가경쟁력 대상' 시상식에서 은행부문 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소호명가, 광은리더스클럽 등 지역 중소기업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서비스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일부 시중은행 예금금리

0.05~0.1%P 소폭 인상

통화당국이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지난 9일 전후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일부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소폭 올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1년 만기 슈퍼정기예금 금리를 종전 연 3.5%에서 3.6%으로, 0.1%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신한월복리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는 지난 10일 연 3.70%에서 3.75%로 0.05%포인트 인상됐다. 산업은행도 지난 9일 1년 만기 '자유자재정기예금' 금리를 연 3.19%로 지난 6일의 연 3.13%보다 0.06%포인트 올렸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등의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아직 예금 금리를 바꾸지 않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순환시계 석달째 '마이너스'

선행지수 대다수 둔화·하강

경기 지표들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의 10개 지표 9개가 상승국면을 이탈해 둔화·하강으로 물러선 현상이 3개월째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종합지수가 10개월째 하락한 가운데 선행지수 10대 항목 가운데 9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급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약전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국면으로 해석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순환시계의 10대 지표 가운데 광공업생산과 설비투자, 수출액, 수임액, 취업자수, 기업경기지수, 소비자경기지수 등 7개 지수가 '둔화' 쪽에, 서비스생산과 건설시공 등 2개 지

수가 '하강'에 각각 위치했다.

'상승' 국면을 지킨 지표는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유일했다. 소매판매액은 7개 지표가 둔화에, 2개 지표가 하강에 위치한 상황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이어졌고 이 기간에 둔화 현상이 심해진 지표가 적지 않았다.

미리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 10월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128.7로 전월보다 0.7% 떨어지면서 6개월만에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3.4%로 전월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차의 하락은 10개월째다.

특히 10월 선행지수를 10대 세부 항목별로 보면 종합주가지수를 빼놓고 9개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10개 중 9개 이상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본격화할 조짐이던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부실 회계처리' 기업·법인·회계사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기업 회계감사 강화에 부실한 회계처리를 한 기업,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부쩍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기업들의 회계 분식이 늘면서 '증시 건전화'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20차례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기업은 20개사로, 지난해 연간 6개사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선위는 연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기업도 지난해 22개사에서 올해는 26개로 늘었다. 회계 부정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된 임직원은 지난해 14명에서 65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나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로서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도 역시 당국의 매서운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히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설치장소: 업무시설, 공장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장점: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친환경 냉매, 하이드로 키트채택. 바닥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진영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

같이의가치 NH 농협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국내산 간마늘 품질만약서. 마늘값도 下下下 주부님도 하하하. 유통비용은 줄이고~ 가격은 내리고~ 주부님께 웃음을 선물합니다! 김장용 간마늘 판매안내: 판매기간 2010년 12월 31일까지, 판매가격 -kg당 상품(上品) 6,800~6,600원, 중품(中品) 6,200~6,000원.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장용 간마늘 구입방법: 1 인터넷주문: (NH쇼핑) www.nhshopping.co.kr, 2 전화 주문: 02)2080-5549 ~ 5558(10개 회선), 3 매장 구입: 농협유통센터 19개점. 전국농협유통센터 매장구입처를 확인하세요! 서울(양재점 02-3498-1105, 창동점 02-3499-6000, 신촌점 02-324-8772, 서대문점 02-2080-6993) / 수도권(성남점 031-738-9000, 고양점 031-910-9100, 수원점 031-299-9000, 인천점 032-500-9000) / 충청권(대전점 042-580-5000, 청주점 043-290-0200) / 대구경북(달성점 053-607-2000, 군위점 054-380-5500) / 부산경남(부산점 051-330-9000, 부전점 051-801-9000, 자갈치점 051-250-7700, 김해점 055-310-7000, 울산점 052-210-8800) / 호남권(전주점 063-210-4545, 목포점 061-280-6000)